

HD현대건설기계·인프라코어 합병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 15兆 목표

내년 초 ‘HD건설기계’ 법인 출범
‘현대·디벨론’ 2개 브랜드 체제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마중물”

HD현대건설기계와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을 통해 매출8조원 규모의 ‘HD건설기계’ (가칭)로 재탄생한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양사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가 배정된다.

HD현대건설기계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면 양사는 내년 1월 1일 합병기일에 맞춰 HD건설기계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합병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고, 미래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합병법인인 HD건설기계는 건설기계브랜드인 ‘현대(HYUNDAI)’와 ‘디벨론(DEVELON)’의 2개 브랜드 체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주력 사업인 건설장비를 비롯해 엔진, 애프터마켓 등 사업 전 영역의 성장을 통해 오는 2030년 글로벌 최고 수준인 매출 14조8000억원 이상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번 합병으로 HD건설기계는 일원화된 의사결정 체계가 가능해져 경쟁력 강화와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제품 라인업을 최적화하고 지역별로 생산체계를 전문화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동시에 콤팩트부터 초대형까지 아우르는 건설장비의 풀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조영철 사장은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의 이번 합병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설기계 산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공고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조감도

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만든다

해수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화오션이 첨단 쇄빙선 건조 기술풍력을 앞세워 한국의 극지 탐험에 활용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한다.

한화오션은 1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달 중 본격적 체결 뒤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설계에 들어가며, 오는 2029년 12월까지 건조를 마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 인도할 계획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총 1만6560톤 규모로, 극지연구소가 현재 운용하는 국내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7507톤)의 2배가 넘는다. 액화천연가

스(LNG)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를 탑재해 1.5m 두께의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양방향 쇄빙 능력을 가진 PC(Polar Class) 3급 성능을 갖췄다. 영하 45도의 내한 성능도 견비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아라온호와 차별화된 완전히 새로운 쇄빙 연구 플랫폼을 지향한다”며 “글로벌 톱티어 조선소인 한화오션의 핵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은 최근 산자부 정책과제인 ‘북극 고위도 연중 운항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PC(Polar Class)2급 쇄빙선 개발’ 과제에 수주, 남북극 탐험을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중기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철퇴’

공정위에 현대캐피코·교촌 고발 요청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엄중하게 조치”

현대캐피코와 교촌에프앤비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해 검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현대캐피코는 현대자동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교촌치킨’ 브랜드로 유명한 교촌에프앤비는 창업주인 권원강 회장이 대주주로, 69.2%를 보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캐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2개 기업은 오랜 기간 거래하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등을 지연발급하거나 불

완전하게 발급했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 유통마진도 일방적으로 줄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캐피코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중소기업들(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3개 수급사업자,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했다.

또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인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해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당시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체

결했는데 계약 기간 중인 같은해 5월에 캔당 1350원 수준인 전용유 공급 마진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내려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억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두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車업체, ‘구독 서비스’ 드라이브… 부담 줄이고 혜택 더해

현대차 제네시스 구독 플랫폼 통합
기아 K9·EV6 등 라인업 확대
KGM 월 단위로 자유롭게 대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초기 부담금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차량 구독 서비스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유럽을 비롯해 인도와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1위 업체에 따르면 KG 모빌리티(이하 KGM)는 차량 구독 서비스 ‘KGM 모빌링’을 론칭하고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에 나섰다. KGM 모빌링은 KGM의 차량을 월 단위로 자유



KGM MOBILING 구독서비스.

롭게 대여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다. 보험·세금·정비에 대한 부가 비용과 보증금·선수금 등 초기 부담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기존현대차와제네시스로 나뉘었던 구독 플랫폼을 통합, 하나의

플랫폼에서 현대차의 다양한 차종뿐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차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 폭을 확대했다.

기아는 프리미엄 차량 구독 서비스 ‘기아 플렉스’를 통해 K9, EV6 등 고급 및 친환경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1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정비·세차 서비스가 포함돼 있어 차량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차량을 소유에서 공유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며 초기 구매 비용과 유지·관리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어 구독 서비스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중견기업, 3분기 경기전망지수 ‘78’

美 관세 등 수출 악화 우려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특히 제조업 내수는 5분기 연속 하락했고 수출도 3분기가 전분기에 비해 더욱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5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78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분기와 비교하면 2.7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1년 전에 비하면 7.2p 내렸다.

암울한전망은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제조업은 전분기(82.6) 대비 5.7p 감소한 76.9로 집계됐다.

제조업 중에선 자동차(70.7, 6.1p ↓)와 기타 제조(67.9, 32.1p ↓) 등이 전 분기 대비 크게 하락하는 등 전망이

어두웠다. 다만 제조업 가운데 전자부품 업종이 107.7로 27.8p의 큰 폭 상승을 기록, 유일하게 ‘100’ 이상으로 기준선을 넘었다.

비제조업은 2분기 당시 78.8에서 3분기엔 79.2로 소폭(0.4p) 상승하며 그나마 선방했다. 비제조업 중에선 부동산(75.6, 11.9p ↑)과 운수(88.5, 10.5p ↑)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내수는 2분기 76.7에서 3분기 78.1로 다소 호전을 예상하고 있지만 수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중동 정세 불안 등 오래 지속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중견기업계의 부정적인 경기 체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